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교회 주일예배
열왕기하 12:17-18
2025 년 8 월 17 일 오전 11 시

성전을 수리했으나 성전을 버린 왕

< 주여 도우소서 >

사무엘과 요아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겨졌고, 요아스는 일곱 살이 될 때까지 6 년 동안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의 손에 의해 양육되었고, 어린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으나,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왕하 12:2).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 때, 요아스 왕은 부서진 성전도 수리하였습니다.

아달라 치세 동안 하나님의 집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대하 24:7). 아달라 추종 세력은 성전을 부수고 성전 안의 성물들을 탈취하여 바알 신전에 바쳤습니다. 부수어진 성전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성전 수리를 꾀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성전 수리는 성전 건축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고민하던 요아스 왕은 어느 날 율법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출 30:16). 인구 조사를 할 때 반 세겔씩 목숨 값을 거두어, 그 은으로 성막 봉사를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수리했으나 성전을 버린 왕(왕하 12:17-18)

1. 성전을 수리한 왕, 요아스

요아스 왕은 출애굽기 30 장 말씀을 근거로 성전세를 거두고 그 거두어진 성전세로 성전을 수리하는 방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에게 성전세 징수와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와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왕하 12:4-5). 문제는 성전세 수금과 성전 공사가 제사장들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본래 역할은 예배와 교육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현대 갑자기 성전세를 징수하고 성전을 수리하라는 왕명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왕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요아스 왕 제이십삼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6 절). 요아스 왕이 30 세가 되었을 때,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7 절).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답변과 제사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8 절). 그렇게 하여 제사장들은 성전세 징수와 성전 수리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성전세는 징수하는 세금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헌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헌금함을 성전 입구에 두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 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9 절). 그리고 헌금함이 채워지면 헌금을 계수하였습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10 절). 헌금 계수는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담당하였습니다.

계수된 은은 모두 성전 공사 감독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11 절). 그럼, 감독관은 그 은을 목수와 석수 그리고 미장이 등 직접적으로 성전 수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또 미장과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12 절). 그리고 목재와 석재 등 성전 수리를 위한 재료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이 헌금은 일꾼들에게만 지출되었습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14 절). 당시 재정 지출을 담당한 감독관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회계 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15 절).

당시 백성들이 드린 헌금은 단 한 푼도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성전 공사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건축 헌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제사에 필요한 그릇이 모자라도 건축 헌금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13 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야 하며,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성전 공사가 아무리 급해도 제사장들의 몫을 건축 헌금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16 절). 이렇게 하여 성전 수리가 끝나고 성전은

본래 모습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말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대하 24:13).

2. 성전을 버린 왕, 요아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성전이 복원된 것을 보고 숨을 거둡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백삼십 세라”(대하 24:15).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지만 열왕의 묘지에 안장됩니다.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대하 24:16).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는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였던 여호람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 삼십이 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대하 21:20). 백성들은 여호람 왕을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람 왕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대하 21:4).

반면에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묘지에 장사한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선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니었다면 다윗 왕조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야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바알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아가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선을 행하였습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중수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것을 보고 파격적으로 여호야다를 열왕의 묘지에 안장하였던 것입니다. 현대 이를 지켜보는

요아스 왕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성전 수리의 공을 요아스 왕에게 돌리지 않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여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사울 왕에게 돌리지 않고 다윗에게 돌릴 때와 비슷합니다. 이후에 사울은 다윗에 대한 태도를 180 도 바꿉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고 다윗의 대적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수리의 공을 요아스가 아닌 여호야다에게 돌리자, 요아스의 마음에 시기심이 자리잡았습니다. 아달라 시대의 우상적 풍토에 영향을 받은 귀족층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요아스를 찾아와 절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대하 24:17-18). 아달라 시대의 우상숭배를 그리워하는 유다 방백들은 요아스를 높이고 부추겨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언제나 믿음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입니다.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고 율법책을 읽으며 성전을 수리하였던 요아스 왕이 시기심 때문에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전을 버린 요아스와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 대해 대제사장 직을 승계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대하 24:20). 헌데 요아스 왕은 회개하는 대신 대제사장 스가랴를 죽입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와 전 뜰 안에서 돌로 쳐죽였더라”(대하 24:21). 그것도 성전 안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아달라도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와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왕하 11:15).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닌 다른 피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헌데 요아스 왕은 아무 죄 없는 대제사장을 성전 안에서 죽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가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대하 24:22).

3.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왕, 요아스

여러분, 요아스 왕의 배은망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니었다면 요아스는 왕이 될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스가라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스가라의 동생들도 죽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대하 24:25). 역대하 24 장 25 절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들’이라는 복수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사울 왕처럼 대제사장 가문을 멸절시키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유다 방백과 요아스 왕에게 보응하셨습니다. 스가라가 억울하게 죽은 지 일년도 되지 않아 아람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요아스를 죄의 길로 유혹한 유다 방백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일 주년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 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대하 24:23). 아람 군대의 칼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유다 군대를 쳐부수고 블레셋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왕하 12:17). 블레셋의 왕도와 같은 성읍 가드를 점령한 하사엘은 예루살렘도 점령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금은보화를 바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와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왕하 12:18). 문제는 그 보물들이 하나님께 봉헌된 성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있는 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차지 않고 물러갔지만,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열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성전 수리의 공을 돌리고 대제사장을 왕실 묘지에 안장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음 속에 시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건물 성전은 수리했지만 마음의 성전은 버렸습니다. 만약 요아스가 시기심으로 파괴된 마음의 성전을 사랑으로 수리하였다면, 요아스는 다윗과 같은 성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허나 요아스는 마음의 성전을 방치하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으나 성전을 버린 왕, 요아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성전은 어떻습니까? 무너진 곳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서 다시 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을 살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